

도내 장애인 권익·자부심 용기를 심다



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에서 마련된 장기자랑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무대 위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
기념사를 하고 있는 김양욱 조직위원장.



송용섭씨가 장애인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.



대표곡 '이정표 없는 거리'를 열창하고 있는 가수 김상진씨.

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(위원장 김양욱)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관한 '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'가 지난 20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.

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는 장애인의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각 단체 발전과 위상 정립은 물론 참여단체와 전북장애인들의 권익과 자부심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.

행사에서는 서거식 교육감 조봉업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,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, 이병철·강동화·황영석·박용근 전북도의원, 이남숙·최주만·최지은·장재희·김정명 전주시의원, 장애인계 양복규 동암이사장 및 각 26개 도 단위 단체 회장 각 기관·단체장 10여명과 장애인 1,300여명이 참석했다.

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, 장애인복지공로 표창장 수여식, 장학금 전달식, 문화예술공연 및 각 단체 장기자랑 순으로 열렸다.

김양욱 조직위원장은 "이날 행사를 계기로 도내 장애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의 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"고 밝혔다.



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모델쇼에 참가한 장애인들.



늘해랑난타팀의 난타 축하공연.



조봉업 전 행정부지사로부터 도지사 표창을 받는 이정복씨(사진 왼쪽).



장애인 장기자랑에 참가한 장애인들



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.



조봉업 전 행정부지사와 김양욱 조직위원장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.